

<요약서>

<p>발표주제</p>	<p>동물권의 부여 대상에 관한 학생들의 인식</p>
<p>팀명</p>	<p>낮 애니멀</p>
<p>I. 탐구 동기 및 목적</p>	
<p>최근에도 일어난 여러 동물 관련 사건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음. 동물권의 부여 대상, 즉 '동물'의 정의가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다고 보아 그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파악하고자 함. 동물권에 대한 의견 수렴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적임.</p>	
<p>II. 이론적 배경</p>	
<p>근대 이전의 인간 중심 사고와 대비되는 '동물권'은 동물도 보호받을 권리 등이 있다는 견해로, 피터 싱어 등에 의해 주장됨. '동물권 부여 기준'은 '인간과 친밀한 동물' 등 인간 중심적 기준과 '고통을 느끼는 동물' 등 그렇지 않은 기준으로 나눔. '동물권 부여 방식'은 모두 같은 정도로 부여하는 일률적 방식과 정도를 나누는 차등적 방식으로 나눔. 그 외에도 '예외적인 종이나 개체에 대한 동물권 부여 여부'도 논의가 가능함.</p>	
<p>III. 1차 연구</p>	
<p>양적 연구(설문지법, 응답자 341명) 이용. [문항 1] 동물권을 부여한다는 학생이 더 많았음. [문항 2] 인간 중심적 기준을 선택한 학생이 더 많았음. [문항 3] 일률적 방식을 선택한 학생이 더 많았음. [문항 3-1] 동물 별로 부여 정도를 표시하도록 한 결과 포유류가 가장 높았고 어류, 곤충류 등이 낮았음. 특이하게 문항 3과 달리 '차등적 방식으로 점수를 준 경우'가 더 많았음. [문항 4.5] 예외적인 종/개체는 인정하지 않는 학생이 더 많았음. [문항 6] 동물권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'생명존중은 필요해도 권리 부여는 지나치다'는 답변이 가장 많았음.</p>	
<p>IV. 2차 연구</p>	
<p>질적 연구(면접법, 피면접자 14명) 이용. [결과 1] '모든 동물'의 정의가 다소 모호하여, 과학적 동물의 정의라고 생각하지 못한 학생이 있었음. [결과 2] 이상적으로는 일률적 방식을 이용해야 하지만, 현실적으로는 차등적 방식을 택하는 것이 맞다고 답한 학생이 있었음. [결과 3] 동물권의 적용 분야를 반려동물 분야 등으로 한정해 생각하는 학생이 상당수 있었음. [결과 4] 동물권을 인정하지 않는 학생 중, 동물보호는 필요하다 생각했지만 동물보호와 동물권의 차이는 잘 몰랐던 학생이 있었음.</p>	
<p>V. 결론 및 제언</p>	
<p>양적 접근을 한 1차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동물권에 대한 전체적인 인식을, 질적 접근을 한 2차 연구에서는 심층적으로 학생들의 생각을 파악할 수 있었음. 한편 현재 대한민국의 동물 보호법에서 '동물'에 파충류·양서류·어류는 '인간이 먹지 않는 동물'만 포함되는데, [문항 2]에서 이 동물권 부여 기준에 동의하는 학생은 그리 많지 않았음. 또한 동물권에 대한 다소 어렵듯한 인식을 가진 학생들이 존재하는데, 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동물권에 대한 인식을 신장시킬 수 있는 활동이 어느 정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.</p>	